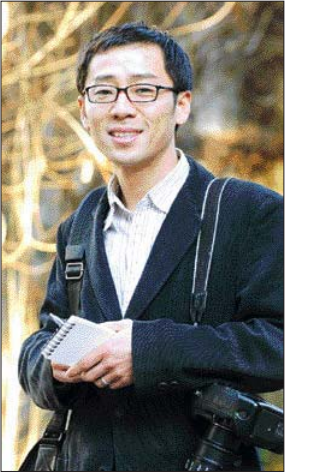


[기획]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1 들어가며

본보는 아시아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지난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연재한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미국편과 일본편에 이어 유럽편을 취재 보도한다. 미술관이 한 나라나 도시의 문화 역량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술관의 수준은 문화적 척도가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문화수도' 광주의 미래가 미술관의 성과와도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보는 '문화대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유명 미술관을 탐방하고 미술관의 선진화가 어떻게 도시,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유럽 선진미술관의 운영 실태를 취재하고 있는 정삼필 특파원.

젊은이들에게 미술관 가는 습관을 길러줘라

프랑스 유치원·초등생 박물관 소풍은 일상사
문화예술 가치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배워

2007년 박물관·미술관 입장객 수

순위	이름	입장객	도시
1	루브르 박물관	825만9천978명	파리
2	대영박물관	541만8천266명	런던
3	데이브 모던 갤러리	519만1천840명	런던
4	메트로폴리탄미술관	433만8천932명	뉴욕
5	비티안 박물관	431만83명	로마
6	내셔널 갤러리	415만9천486명	런던
7	베르사유 궁전	341만1천36명	베르사유
8	오르세 미술관	316만2천509명	파리
9	도쿄 국립박물관	311만1천490명	도쿄
10	프리도 미술관	266만3천174명	마드리드
11	조지프피우미미술관	158만5천701명	파리
12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243만3천194명	런던
13	현대미술관(MOMA)	240만5천225명	뉴욕
14	개브릴리박물관	148만2천945명	파리
15	구겐하임 미술관	100만2천963명	빌바오

판에 5천259명,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해양박물관에 2천203명이 참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행사를 기획한 포르투갈 리스본의 국립 고전미술관에도 이날 하루 동안 1천434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물론 유럽의 대형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작이나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장점 때문에 관람객이 몰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나 자치단체, 기업 등의 후원을 등에 업고 참신하고 기발한 기획을 끊임없이 생산해, 관람객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것도 사실이다.

미술관 건립으로 도시 위상을 바꾼 경우도 많다. 발전소 건물을 개조해 만든 런던의 테이트 모던이나 철도역이 변신한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보잘 것 없던 스페인의 폐광 도시 빌바오에 세워진 구겐하임 미술관 등은 도시 리모델링의 성공 사례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유럽 미술관 탐방을 통해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의 밤'

39개국 2,200여곳 참여 무료 개방
콘서트 등 젊은 세대 최대의 배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박물관의 밤'은 올해로 5회(포스터)를 맞는다. 프랑스를 비롯, 유럽 권의 문화 협약을 가입한 39개국의 참여로 2001년 탄생한 '박물관의 밤'이 모태가 됐다. 봄이 시작되는 어느 일요일 하루를 정해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한 것이다.

'박물관의 밤'은 '박물관의 봄'을 확대·적용한 것으로, "가까이 있지만 멀게 느껴지는" 박물관을 보다 친숙하게 대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 당일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행사 참여 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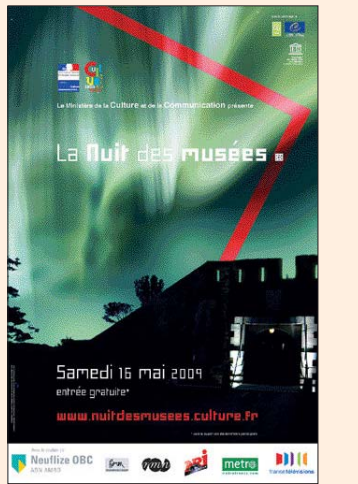
밤 시간으로 정한 것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배려다. 규모가 크지 않은 박물관의 경우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는 곳도 있어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박물관들은 이날에 맞춰 각종 특별전시회 등을 열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행사 참여 박물관 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의 경우 프랑스에서만 각 도시에서 1천여 박물관이 참여했으며,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태리 등 유럽 내 39개 국가의 2천200여 박물관이 행사에 동참했다.

지난해 '박물관의 밤'을 즐기 위해 파리 근교 117개 박물관에는 19만명이 다녀갔다. ▲2005년 11만2천511명(67개 박물관) ▲2006년 11만4천297명(81개 박물관) ▲2007년 17만8천739명(105개 박물관) 등 행사 첫 해부터 관객 수와 참여 박물관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사 날짜는 유네스코 협력기구인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정한 '세계 박물관의 날'(매년 5월18일)과 가장 가까운 토요일로 정해진다. 올해 행사는 5월16일로 기획됐다.

/정삼필 특파원 camus@kwangju.co.kr



는 습관을 길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예술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의 미술관에서 줄지어 손잡고 가는 유치원생이나 명작 앞에서 친구들과 장난 치는 중·고교생, 교수의 말을 들으며 노트 필기에 열중하는 대학생 등을 발견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처럼 젊은이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프랑스만이 아니다. 그 단적인 예가 매년 5월에 유럽 전역에서 열리는 '박물관의 밤' 행사다. 토요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미술관을 무료

로 개방하는 것으로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4회 행사에서는 프랑스에서만 150만명이 미술관의 밤을 즐겼다. 이태리 제노바의 박물관



고대오리엔트 시대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귀중한 미술품 20만점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 제1의 미술관인 루브르박물관은 언제나 관람객들로 북적인다.
/파리=정삼필 특파원 camus@kwangju.co.kr

38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com

1577-3000

광주지사: 062-226-2601

광주서구점 062-383-1133 광주첨단점 062-976-3050
 순천점 061-755-7114 목포점 061-244-5882
 익산점 063-843-3800 전주롯데점 063-289-2855
 군산점 063-245-0006 전주시청점 063-282-3210

EVENT 1 가족사랑 & 나눔 Event **휴먼리가 간다**

EVENT 2 **1000원의 행복**

무안 출발 롯데관광 38주년 & 광주지사 OPEN 2주년 기념 고객감사 특별전

2009 Spring **Honeymoon**

12월 한정반려견서리 광배론 3Floor 스위트 단독빌라 5일 ₩1,699,000부터

12월 한정반려견서리 광배론 3Floor 스위트 단독빌라 5일 ₩1,699,000부터

12월 한정반려견서리 광배론 3Floor 스위트 단독빌라 5일 ₩1,499,000부터

삼척산 유적광물산비탈을따라인산의예에

공통특전

상해, 항주, 삼척산 4일 ₩529,000부터

상해, 항주, 삼척산 5일 ₩699,000부터

상해, 항주, 삼척산, 황산 5일 ₩729,000부터

상해, 삼척산, 용호산수 5일 ₩739,000부터

북경 압록강과북경의풍광여행

공통특전

북경, 만리장성 4일 ₩289,000부터

Big Hit 북경, 만리장성 4일 ₩399,000부터

북경, 만리장성 4일 ₩499,000부터

북경, 만리장성 5일 ₩529,000부터

유일 파우더 할인

대한민국 대표 파우더 특가 6% 할인

12월 한정반려견서리 광배론 3Floor 스위트 단독빌라 5일 ₩1,699,000부터